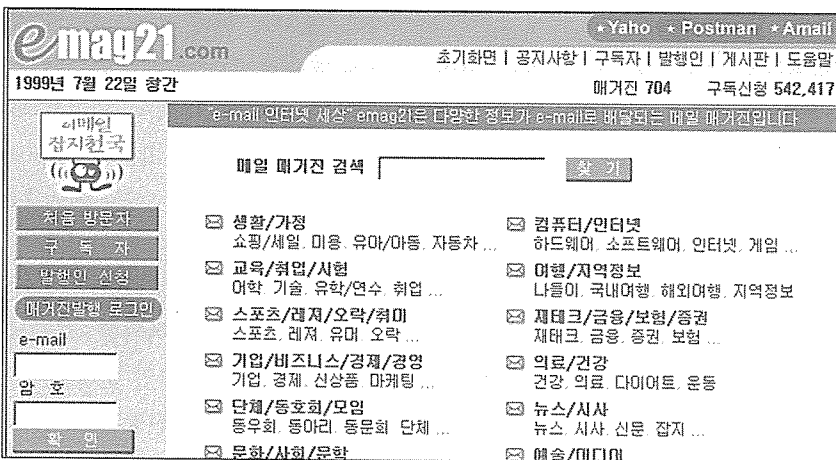




차세대잡지 「메일 매거진」 인기

산 전문지 등을 발행하고 싶은 사람은 메일 매거진 운영사이트에 접속,



원하는 정보를 컴퓨터로 배달해주는 「메일 매거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보를 찾기 위해 일일이 수많은 홈페이지를 찾아다니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는 「메일 매거진」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메일 매거진은 전자우편(E메일)과 매거진(magazine)의 합성어로 전자우편을 통해 정보를 발행하고 구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잡지다. 메일 매거진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 자신의 PC에서 전자우편 형태로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바쁜 회사원이나 편리함을 찾는 네티즌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메일 매거진은 특히 누구나 돈을 들이지 않고 인터넷 잡지를 발행할 수 있고, 구독도 간단해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낚시나 등

해당 내용을 게재하면 된다. 구독자는 이 사이트에 게재된 다양한 매거진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전자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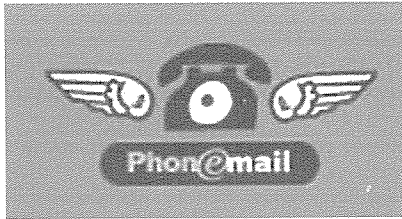
현재 메일 매거진 서비스는 사이트의 운영업체가 발행인과 구독자를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이뤄지며, 운영업체는 메일 매거진에 게재되는 인터넷 광고로 수익을 낸다. 해외의 경우 메일 매거진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일본에선 마그마그사의 「매그2」(www.mag2.com)가 창간 2년만에 9천여종의 잡지와 1천2백여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거대한 사이버 매체로 급부상했다. 국내에서는 올들어 인포웍의 「인포메일」과 이지페이퍼의 「이지페이퍼」, 에이메일의 「이매그21」 등이 연이어 등장, 메일 매거진

시대를 열었다. 이지페이퍼(www.ezpaper.co.kr)는 매일 1천90여종의 잡지를 약 21만명의 구독자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지페이퍼에는 무협소설 잡지인 「무림 언더그라운드」와 미담소식 잡지인 「향기로운 뉴스」, 자작시와 단편소설을 소개하는 「작은 바람의 습터」 등 대중문화와 컴퓨터, 스포츠 등과 관련된 총 14개 분야의 잡지가 등록돼 있다.

이매그21(www.emag21.com)은 창간 두달만에 4백60여종의 잡지와 46만의 구독부수를 확보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이매그21에는 생활·가정, 교육·취업, 스포츠·레저, 의료·건강, 재테크·금융 등 16개 분야의 다양한 잡지가 등록돼 있다. 이매그21은 특히 벤처기업 투자, 재테크, 주식 등 전문인을 겨냥한 고급정보를 무기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인포메일(infomail.co.kr)은 뉴스·오락 등과 관련된 1천30여종의 잡지와 25만의 구독부수를 확보하고 있다. 인포메일은 특히 외국어와 교육, 취미 등과 관련한 잡지가 많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음성메일 무료서비스 잇단 등장

무료 음성메일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음성메일은 전화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남기면 녹음된 내



음성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폰메일 (www.phonemail.co.kr) 사이트의 로고.

용을 사운드파일로 바꿔 전자메일로 보내주거나 받은 메일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음성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음성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 ID와 메일주소, 메일이 도착했을 때 문자 서비스를 통해 이를 알려줄 호출기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휴처인터넷 '소리메일' (www.sorimail.net) 사이트에 접속, 회원에 가입한 뒤 일련번호를 매겨 상대방 메일주소를 입력해두면 언제든 전화(02-879-0052)로 음성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수신된 메일도 전화로 확인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문자로 읽을 수도 있다.

내일정보기술 '폰메일' (www.phonemail.co.kr) 회원에 가입, 폰메일ID를 받아 전화(02-3437-1116)로 목소리를 녹음하면 압축파일 형태로 상대방에게 보내준다. 수신자의 메시지 청취 여부를 보낸 이에게 통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애드파일 메일토크(www.mailtalk.co.kr)에 상대방 메일주소만 입력해두면 전화(02-786-7007)로 음성을 녹음, 전세계 누구에게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

한꺼번에 수백명에게 음성메일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

디고뉴미디어컨설팅도 '스폰지메일' (www.spongy.net)을 시작했고, 다우기술도 다우인터넷(www.qrio.com)에 통합메시징시스템을 적용, 인터넷에서 보낸 전자메일을 음성으로 바꿔 전화나 호출기, 팩시밀리로 전해주는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영화표 인터넷 당일 예매

인터넷을 이용해 원하는 영화 프로그램을 당일 예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화표 예매 사이트인 이벤트맥스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상영 2시간 전까지 예매를 가능토록 하는 자체 입장권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최근 복합상영관인 서울 중구 초동 명보프라자 극장과 예매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벤트맥스는 올 연말까지 30개 극장으로 이같은 '실시간 예매 서비스'를 확대기로 하고 서울극장, 동숭시네마텍, 씨네플러스, 중앙시네마(대구), 엔터시네마(광주) 등 전국의 주요 상영관을 상대로 입장권 예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해 예매를 원하는 관객

은 이 회사의 웹 사이트(www.eventmax.com)에 접속한 뒤, 관람일자, 관람 영화, 상영 시간 등을 입력한 뒤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 관람료를 지불하면 좌석을 지정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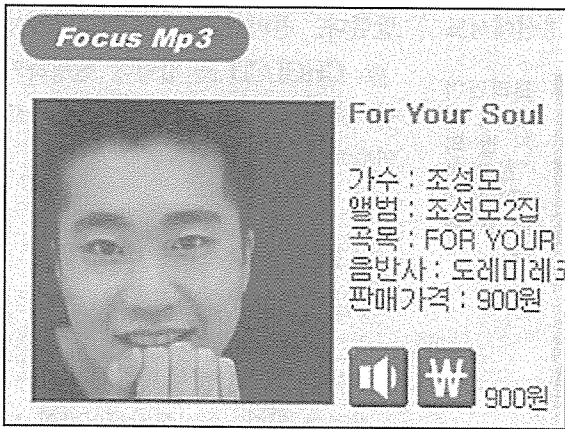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예매 서비스 회사와 극장의 전산망이 연결돼있지 않아 예매 서비스회사가 예매 고객들의 자료를 모아 팩스로 극장에 보내면, 극장은 이를 다시 자체 전산망에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관객들은 최소한 하루 전에는 예매를 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방식을 도입, 관객수를 자동으로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세금 허위신고와 같은 일부 극장들의 고질적인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영화표 예매 방식은 온라인 전산망을 통한 영화표 예매방식에 비해 인터넷만 설치돼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예매가 가능하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카드번호 유출 가능성이라는 문제만 완전히 해결되면 이상적인 예매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당일 예매하는 시대가 열렸다.

MP3 인터넷서비스 본격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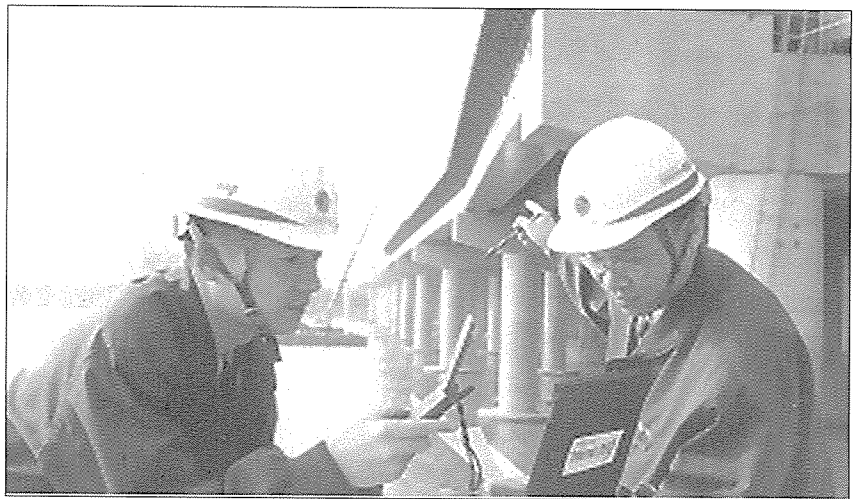


렛츠뮤직사이트에서 인기가수 조성모의 노래를 9백원에 다운로드 받아 MP3로 들을 수 있다.

대중음악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렛츠뮤직(www.letsmusic.com)이 10월부터 MP3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렛츠뮤직을 운영하고 있는 나눔기술은 렛츠뮤직과 음원관리유통전문회사인 인터넷음악유통(www.allmp3.com)에 MP3 음악파일을 살 수 있는 쇼핑몰을 최근 개설했다. MP3란 컴퓨터나 디지털상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파일 가운데 압축률이 가장 높고 음질까지 좋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파일의 한 종류이다. 일반 녹음 테이프처럼 녹음하고 지울 수도 있고 반복해서 녹음해도 음질이 떨어지지 않으며 인터넷이나 PC통신에 연결, 휴대용 MP3플레이어로 파일을 전송받아 들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눔기술은 먼저 현재까지 음원을 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3만5천곡 가운데 3천곡을 대상으로 한곡당 9백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나눔기술은 이와 함께 인터넷 소액 결제시스템인 아이민트(iMint)를 MP3 서비스 개시에

맞춰 출시한다. 고유 식별번호 16자리로 된 아이민트를 구입한 이용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이 원하는 MP3 음악파일을 선택한 뒤 고유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아이민트는 우선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부터는 공중전화카드처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이민트 실물카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LG텔레콤 원격 재해방지서비스 개시



한남대교에 설치, 운영중인 019 원격 재해방지서비스를 통해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교량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교각, 댐의 수중 허부 등 주요 시설물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원격으로 감지, 재해를 예방해주는 무선 데이터서비스가 등장했다. LG텔레콤은 최근 019 PCS의 무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한

'019 원격 재해방지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무인센서가 내장된 계측기와 019 PCS폰을 연결한 시스템을 재해위험이 있는 현장 시설물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위험상황을 감지해 019 PCS망을 통한 무선 데이터서비스로 전송, 원격지에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이다.

따라서 원격지에 위치한 중앙통제센터에서는 무선망을 통해 수집된 현장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책임자도 PCS폰과 노트북PC를 연결해 사용하면 이동중 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현장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다.

LG텔레콤은 벤처기업인 데이터

PCS사와 공동으로 이 서비스를 개발, 현재 서해대교, 청담대교, 한남대교 등 주요 교량과 바다에 위치한 부산의 광안타워 등에 설치, 운용중이며 앞으로 전국의 1백여 교량 및 댐에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PC통신과 인터넷 겸용
'천리안2000' 출시

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AOL 등 세계적으로 3개사만 개발에 성공한 소프트랜카드로 인터넷 전용선에서도

문에 초보자들도 손쉽게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리안2000은 천리안에서 'go CHOLCD'를 입력해 신청하거나 천리안고객센터(02-709-3700)로 연락하면 무료로 배달된다.



천리안이 인터넷 기반의 '천리안 2000'을 발표했다

저가형 고속인터넷 러시
-드림라인 2만원대 선보여

저가형 고속인터넷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드림라인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와 가격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용 2종, 비즈니스용 2종 등 4종의 인터넷서비스를 개발, 최근 서비스에 들어갔다. 가정용은 최고 10Mbps의 속도를 가진 '드림라인'과 최고 1Mbps 속도의 '드림라인 라이트' 2종으로 월 이용료는 각각 3만8천원, 2만9천이다. 또 비즈니스용은 소호족을 위한 '드림라인 소호(SOHO)'와 일반기업 대상의 '드림라인 멀티' 등으로 월 이용료는 각각 9만9천원, 13만원이다. 드림라인 소호서비스는 PC 3대를 기본으로 1대를 추가할 때마다 PC 1대당 월 2만원이 추가되며, 드림라인 멀티의 경우 PC 13대를 기본으로 하며 PC 1대당 1만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4종의 서비스 모두 가입때 내는 설치비는 6만원이며 장비 임대료는 임대 기간에 따라 월 5천원~2만9천원이다.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이 가정에 제공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은 월 이용요금이 4만원대여서 3만원대의 드림라인 가정용 서비스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㉟

데이콤이 인터넷 네트워크(TCP/IP망)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인터넷과 PC통신을 같은 화면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천리안 전용 인터넷 브라우저 '천리안 2000'을 출시했다. 기존 '천리안98'이 PC통신용 네트워크에 기반한 폐쇄형 브라우저였다면 이번에 출시된 천리안2000은 인터넷망에 기반한 개방형 인터넷통신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PC통신과 인터넷을 동시에 구동할 수 있다. 천리안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어댑터를 천리안2000에 장착함으로써 전화접속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한편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의 모든 기술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천리안어댑

동작하며 별도의 추가적인 인터넷 설정도 필요없다고 천리안은 설명했다. 천리안2000은 자료를 다운받으면서 채팅을 할 수 있고 중간중간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으며 게시판을 검색하면서 멀티미디어 파일을 클릭,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등 다중적인 웹서핑도 가능하다.

또한 이 제품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인 드림플레이어를 더욱 강화, 영화나 뮤직비디오, 음악,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포맷들을 파일형태에 상관없이 드림플레이어 하나만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천리안은 '인터넷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저 인터페이스와 안정성에 역점을 두었기 때